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 결

사건	2023고단133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영철(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치호(공판)
판결선고	2023.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 14:00경 안양시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4. 2. 20:1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2갑과 추팍츄스 사탕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00원을 결제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15경 같은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F편의점’ 내부 CCTV 영상1), 수사보고서(‘F편의점’ 내부 CCTV 영상2),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및 LOST 112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담배, 사탕의 구입대금을 2회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편의점 업주로부터 ‘다른 사람 카드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 결제내역을 직접 취소하였으며,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안양지구대에 방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